

- ☞ 간적[肝之積]을 비기(肥氣)라고 한다.
심적[心之積]을 복량(伏梁)이라고 한다.
비적[脾之積]을 비기(痞氣)라고 한다.
폐적[肺之積]을 식분(息奔)이라고 한다.
신적[腎之積]을 분돈(奔豚)이라고 한다.

☞ 사물탕 - 속지황, 당귀, 천궁, 백작약 으로 구성, 肝經의 주약이다.

당귀 - 君 - 活血生血 - 봄(春) (활혈생혈, 혈분을 활성화 시키고 생산한다. 생산은 계절로 봄에 해당합니다.)

속지황 - 臣 - 補血 - 겨울(冬) (보혈, 혈을 보충해준다. 혈액을 몸속에 보충해준다. 저장은 겨울에 해당합니다.)

작약 - 佐 - 斂陰 - 가을(秋) (렴음, 음액을 수렴시킨다. 음액을 몸속으로 모은다. 수렴은 가을에 해당합니다.)

천궁 - 使 - 血中氣行 - 여름(夏) (혈중기행, 혈액속의 기를 운행시킨다. 운행 및 활동은 여름에 해당합니다.)

☞ 오장의 상증과 병증

肝傷證

- 有所墜墮,惡血有內,有所大怒,氣上不下,積於脇下,則傷肝.
又曰,大怒氣逆,則傷肝.(靈樞)

○높은 데서 떨어져서 속에 갇은 피[惡血]가 몰려 있거나 몹시 성을 내서[大怒] 기운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지 못하고 옆구리 아래로 몰리면 간이 상한다.
또한 몹시 성을 내서 기운이 거슬러 올라가도 간이 상한다[영추].

肝病證

- 肝病者,兩脇下痛,引小腹,令人善怒.
- 肝熱者,色蒼而爪枯.(內經)
- 外證,善_결潔,面青,善怒,
內證,臍左有動氣,按之牢若痛,
其病,四肢滿閉,淋_제澁_되便難,轉筋,有是者肝也,無是者非也(難經)

- 간병 때에는 양쪽 옆구리 아래가 아프면서 아랫배[小腹]까지 켕기며 성을 잘 낸다.
- 간에 열이 있으면 얼굴빛이 퍼렇고 손톱이 마른다[내경].
-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며 얼굴빛이 퍼렇고 성을 잘 내는 것이다.
속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배꼽 왼쪽에 동기(動氣)가 있으며 눌러 보면 단단하고[牢] 약간 아프다.

心傷證

- 憂愁思慮,則傷心.(難經)
- 心傷者,其人勞倦,則頭面赤裏下重,心中痛而,自煩發熱,臍上跳,

其脈弦,此爲心藏傷,所致也.(仲景)
현

- 근심과 걱정을 하거나 지나치게 생각을 하면 심(心)이 상한다[난경].
- 심이 상하면 몹시 피로하고 노곤하며 머리와 얼굴이 벌겋게 되고 아랫도리가 무거우며 가슴 속이 아프면서 답답 하고 열이 나며 배꼽 위가 뛰고 맥이 현(弦)하다. 이것이 심이 상한 증상이다[중경].

心病證

- 邪在心則,病心痛,喜悲,時眩仆.(靈樞)
현 부
- 心熱者,色赤而絡脈溢也.(內經)
일
- 外證,面赤,口乾,善笑,
內證,臍上有動氣,按之牢若痛,
되
其病,煩心,心痛,掌中熱而哕,有是者心也,無是者非也.(難經)
완

- 심에 사기(邪氣)가 있어서 앓을 때에는 가슴이 아프고 잘 슬퍼하며 때로 어지럼증이 나서 넘어진다[영추].
- 심에 열이 있으면 얼굴빛이 벌겋고 낙맥(絡脈)으로 피가 많이 나간다[내경].
-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얼굴이 벌겋고 입이 마르며 잘 웃는 것이다.
속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배꼽 위에 동기(動氣)가 있으며 눌러 보면 뚝뚝하고[牢] 아픈 것 같다.
병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 부위가 아프며 손바닥이 뜨겁고 헛구역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심병이다.
이런 증상이 없으면 심병이 아니다[난경].

脾傷證

- 有所擊仆,若醉飽入房,汗出當風,則傷脾.(靈樞)
격 부 취 포 한
- 飲食勞倦,則傷脾.

- 타박을 받거나 넘어지거나 술과 음식을 지나치게 먹은 다음 성생활을 하거나 땀내고 바람쏘이면 비가 상한다
- 음식을 절도없이 먹고 힘겹게 일하면 비가 상한다[난경].

脾病證

- 邪在脾胃,則病肌肉痛,
陽氣有餘,陰氣不足,則熱中,善飢,
陽氣不足,陰氣有餘,則寒中腸鳴,腹痛.(靈樞)
명
- 外證,面黃,善噫(애),善思,善味,
內證,當臍有動氣,按之牢若痛,
其病,腹脹滿,食不消,體重,節痛,怠惰嗜臥,四肢不收,有是者脾也,無是者非也.(難經)
창 다 기

- 脾熱者,色黃而肉蠕動.(內經)
연
- 사기(邪氣)가 비위(脾胃)에 있으면 살이 아프다.
양기(陽氣)가 지나치고 음기(陰氣)가 부족하면 속에 열이 생겨서 배가 쉽게 고프다.
양기가 부족하고 음기가 지나치면 속이 차저서[寒] 끓고[鳴] 아프다[영추].
-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얼굴빛이 누렇게 트림이 잘 나며 생각을 잘하고 맛을 잘 아는 것이다.
속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배꼽 부위에 동기(動氣)가 있으며 눌러 보면 뚝뚝하고[牢] 아픈 것 같다.

않을 때 배가 불러 오르고 그득하면서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몸이 무거우며 뼈마디가 아프고 권태증[怠惰]이

나서 눕기를 좋아하며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증상이 있는 것은 비병(脾病)이다.

이런 증상이 없는 것은 비병이 아니다[난경].

○ 비에 열이 있으면 누런 빛이 나타나고 살이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실룩거린다[내경].

肺傷證

○ 形寒飲冷 則傷肺 (靈樞)

○ 몸이 잘 때 찬 것을 마시면 폐가 상한다[영추].

肺病證

○ 邪在肺則 病皮膚痛 寒熱上氣 喘汗出 咳動肩背. (靈樞)

○ 肺病者 喘咳逆氣 肩背痛 汗出 尻陰股膝 髀腓胫足 皆痛. 虛則少氣不能報息 耳聾
噎乾.
噎_익

○ 肺熱者 色白而毛敗. (內經)

○ 外證 面白 善噎 悲愁不樂 欲哭.
噎_체 哭_곡

內證 臍右有動氣 按之牢若痛 其病喘咳 洒淅寒熱. (難經)
洒淅_{쇄절}

○ 폐에 사기(邪氣)가 있으면 피부가 아프고 춥다가 열이 나며 기가 위로 치밀어 올라 숨이 차고 땀이 나며 기침할 때에 어깨와 잔등을 들먹거린다[영추].

○ 폐병 때에는 숨이 차고 기침이 나며 기운이 치밀어 오르고 어깨와 잔등이 아프며 땀이 나고 엉치와 다리, 무릎과 허벅다리, 종아리, 정강이, 발이 다 아프다.

폐가 허하면 기운이 적기 때문에 숨결이 약하고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며 귀가 먹고 목구멍이 마른다.

○ 폐에 열이 있으면 얼굴빛이 허열고 머리털이 바스라진다[毛敗][내경].

○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얼굴빛이 허열고 재채기를 잘하며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즐거워하지 않고 울려고만 하는 것이다. 속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배꼽의 오른쪽에 동기(動氣)가 있으며 눌러 보면 뚝뚝하고[牢] 아픈 것 같다.

이 병 때에는 숨이 차고 기침이 나며 으쓱으쓱 춥다가 열이 나기도 한다[난경].

腎傷證

○ 有所用力舉重 若入房過度 汗出浴水 則傷腎.(靈樞)

○ 久坐濕地 強力入水 則傷腎.(難經)

○ 힘겹게 무거운 것을 들거나 지나치게 성생활을 하거나 땀이 났을 때 찬물에 목욕하면 신장이 상하는 때가 있다.

○ 오랫동안 습기가 있는 땅에 앉아 있거나 억지로 물에 들어가서 참고 있으면 신장이 상한다[난경].

腎病證

○ 邪在腎則 病骨痛陰痺.陰痺者 按之而不得 腹脹腰痛 大便難 肩背頸項痛 時眩.(靈
樞)
眩_현

○ 腎熱者 色黑而齒枯.

○ 外證 面黑 善恐 數欠.

內證 臍下有動氣 按之牢若痛 其病逆氣 小腹急痛泄 如下重 足脛寒而逆. (難經)
脛_경

- 신에 사기가 있으면 뼈가 아프거나 음비병(陰痺病)이 생긴다.
음비병은 눌러 보아서는 모른다. 그러나 배가 불러 오르고 허리가 아프며 대변을 누기가 힘들고 어깨와 잔등,
목이 아프고 때로 어지럼증[眩]이 생긴다[영추].
- 신에 열이 있으면 얼굴빛이 거멓고 이[齒]가 마른다.
-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얼굴빛이 거멓고 잘 무서워하며 자주 하품하는 것이다.
속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배꼽 아래에 동기(動氣)가 있으며 눌러 보면 뚝뚝하고[牢] 아픈 것 같다.
그리고 이 병 때에는 기가 위로 치밀어 오르고 아랫배[小腹]가 켜기면서[急] 아프고 설사가 나며
뒤가 묵직하고[重] 발과 정강이가 싸늘해져서[寒] 올라온다[逆][난경].